

# “과학 더 가까이...세대 함께하는 공간 조성”

## ‘취임2년’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

“누구나 부담 없이 과학을 접하고,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학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운 공간이 되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취임 2년을 맞는 이정구(64·사진) 국립광주과학관장은 9일 이렇게 밝혔다.

과학관은 최근 기후·생태 위기를 과학과 예술의 언어로 풀어낸 특별전 ‘위기의 지구, SOS’를 선보이고 있다. 멸종위기 표본, 페플라스틱 작품, 갯벌 생태 소개, ‘나눔레고’ 체험 등을 통해 생태 보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확장한다. 특별전은 내년 3월2일까지 계속된다.

이 관장은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실감나게 와닿도록 1년간 심혈을 기울였다”며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를 제대로 알려면 광주과학관에 와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고 싶다”고 말

## 최근 ‘위기의 지구, SOS’ 특별전 개막

1년여 준비...기후위기 등 메시지 전달

올해 국제표준 잇단 인증·접근성 확대

“ESG 경영...임기 내 주타차워 건립도”

했다.

이어 이 관장은 “단순한 지구의 경고가 아니라, 지구과학·생명과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문제 해결 역량과 기후·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전시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과학관은 대외 신뢰 지표를 빠르게 쌓았다. 안전보건·부패방지·고객만족 환경경영 등 국제표준을 연이어 획득했으며, 가족친화 인증을 추가했다. ‘국민공감 캠페인’ 분야, ‘올해의 SNS’(비영리 부문) 최우수상 등 수상도 이어졌다.

관람 현장에서 체감도가 더 크다. 이 관장은



했다.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과학관에서의 생일파티’는 어린이 가족 대상 전시 해설, 만들기 활동, 기념촬영을 묶은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5개 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초청해 동일한 생일파티를 무료로 정례화하고, 성인 문해 학습자를 위한 초청 프로그램 ‘손주에게 알려주고 싶은 과학’도 운영 중이다.

이 관장은 “평생 처음 과학관을 찾은 어른신

“광주에서 인기관광지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고, 5대 국립과학관 가운데서도 높은 관람 수요를 확인했다”며 “다른 과학관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현장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전

이 ‘설명이 귀에 쏙 들어왔다’고 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며 “공공기관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과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무료 개관을 정례화하고, 가정의 달·명절 등에도 무료 개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교육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시교육청, 동·서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교사 대상 해설·연수 프로그램을 먼저 열고, 방학 기간 학생 관람을 촘촘히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말·방학마다 반복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건립’을 임기 내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이정구 관장은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ESG 경영을 이어가고 지역 아이들과 어른신, 교실과 가정까지 아우르는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며 “행복하게 일하는 조직, 가까이서 신뢰받는 과학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명진기자

## 광주 무학초 시화집 ‘몽글몽글 꿈쟁이들’ 출판

전교생·병설유치원 원아·교원 참여

49편 담아...‘AI 학습공간’ 개관도

광주 무학초등학교는 9일 시화집 ‘몽글몽글 무학 꿈쟁이들’ 출판기념회와 함께 ‘무지개 팩토리’(AI 팩토리) 준공식을 가졌다.

무학초 학생과 병설유치원 원아, 학부모, 교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무지개 팩토리 준공 기념 테이프 커팅식과 학생들의 낭독회가 진행됐다.

‘몽글몽글 무학 꿈쟁이들’은 무학초 전교생이 직접 쓰고 그린 시와 그림을 엮어낸 시화집으로, 이성자 작가와 고현경 화가의 지도 아래 완성됐다. 무학초 학생 19명이 각각 2편씩, 병설



유치원 원아 6명이 각각 1편씩, 교원 5명이 1편씩 등 총 49편이 담겼다.

김단우(2학년) 학생의 ‘기린 수영장’, 조우진(학년) 학생의 ‘꼬물꼬물 빗줄기’, 강민정(5학

년) 학생의 ‘빗방울의 발자국’ 등 학생들이 순수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과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무지개 팩토리를 둘러보며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의 의미도 되새겼다.

김세은(6학년) 학생회장은 “내 작품이 담긴 시집이 세상에 나와 자랑스럽고 친구들과 같이 쓸 AI 공간까지 생겨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 무지개 팩토리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창작 활동을 펼쳐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숙 교장은 “시집 출판은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과 창의성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교육적 결실이고, 무지개 팩토리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학습의 터전이 될 것”이라며 “문화적 감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 광주문화예술상 문학상 손동연·김영철·김강호 작가

광주시는 9일 “2025 광주문화예술상” 문학 부문 수상자로 박용철문학상에 손동연(70) 작가, 김현승문학상에 김영철(73) 작가, 정소파문학상에 김강호(64) 작가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1시30분 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들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고 2026년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금 각 1천만원이 제공된다.

광주문화예술상 문학 부문은 광주 출신 문학인 박용철·김현승·정소파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시·소설 등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3명을 선정해 각각 박용철문학상, 김현승문학상, 정소파문학상을 시상한다.

박용철문학상을 수상하는 손동연 작가는 서울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 당선으로 등단해 시·시조·동시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 10편의 시가 수록되는



등 광주 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김현승문학상을 받는 김영철 작가는 기간지 ‘아시아서적문학’과 시조 전문지 ‘시맥’ 발간 등 지역 출판 활동을 통해 문인들의 창작 기반을 마련했다.

정소파문학상을 수상하는 김강호 작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 후 시조 분야 창작활동을 이어오며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광주 문학의 가치를 알렸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학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광주기독병원-국제로타리 3710지구 ‘동행 협력’ 협약

광주기독병원은 “병원 개원 120주년과 국제로타리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최근 병원 제증실에서 국제로타리 3710지구와 동행 협력 MOU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봉사’와 ‘나눔’의 설립 취지를 기반으로 이를 국내·외에서 적극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외 의료봉사 ▲국제로타리 3710지구 로타리관·가족 대상 건강검진·독감 예방접종 지원 ▲각종 기부·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은 광주로타리클럽 직장주회로 함께 진행됐으며, 광주기독병원 직원 중 모범사원 4명에 표창과 부상이 수여됐다.

김옥중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광주·전남 최고의 종합병원인 광주기독병원과 함께 지역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병원장은 “개원 120주년을 맞아 국제로타리 3710지구와 뜻깊은 동행을 하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로타리와 함께 국내·외 의료봉사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기수희기자

## 광주 동부경찰, ‘경학실습학점제’ 수료자 15명 배출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조선훈 경장행 정학과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경학실습학점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한 학생들은 지난 15주 동안 ▲경찰서 기능별 이론 수업 ▲지구대·파출소 현장 실습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견학 ▲시뮬레이션 사격 체험 등을 통해 실제 경찰이 되기 전 관련 업무를 미리 경험했다.

이 같은 경험이 실제 학점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월 조선훈과 동부경찰서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예비 경찰 인력인



학생들이 이번 경학실습학점제를 통해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NGO재단 ‘광주활동가상’ 선정



광주NGO시민재단은 9일 “제2회 광주활동가상 수상자로 최낙선(사진)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상임이사는 지난 32년 동안 지역 내 환경·생태 분야 시민사회활동가로서 활약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았다.

그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 ▲장목습지 국가습지 지정 및 무등산 평두메습지 탐사습지 등록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을 통해 해결했다.

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과 시민협력위원장,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해방 광주 총괄 진행을 역임하며 시민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했다.

시상식은 내년 2월4일 전일빌딩 245층 시민마루에서 열리는 제2년 정기총회에서 개최돼 상패와 상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최낙선 상임이사는 “수상의 영광은 환경·생태 분야 활동가들에게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형우기자

## 주정민 전남대 교수 미디어정책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는 9일 “주정민(사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주 신임회장은 미디어 콘텐츠 정책과 플랫폼 규제 분야의 전문가로, 학계와 공공부문에서 활발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이어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 미디어 산업과 콘텐츠 정책 관련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주 신임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미디어 환경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며 “학회가 사회적 책임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연구 공동체로서 미래 미디어 생태계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 순천경찰,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순천경찰서는 지난 8일 순천신흥중학교에서 사이버도박·마약·딥페이크·픽시자전거·학교폭력 등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찰, 순천교육청, 자율방범대, 청년회의소(JCI), 교사, 학생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친구사랑의 날’ 예방 문구가 적힌 파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대원 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난날 1일부터 이달말까지 ‘SPO-스쿨안전 UP!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기자

## 결혼

▲문명열(전 금파공고 교사)·유민숙씨 아들 준희(해남 우수영초 교사)군, 윤영기(광주일보 정치·경제담당 에디터)·김선희씨 딸 혜원(해남 황산초 교사)양=13일(토) 오후 12시 광주 클로리아웨딩홀(옛 데일리웨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김성택·김광순씨 아들 옥진군, 이해음·박옥실씨 딸 송희양=13일(토) 오후 4시 메리포렌웨딩홀 메이에르홀(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0507-1401-4170). ▲이정현·강영희씨 아들 원창군, 신승식·오형욱씨 딸 현선양=13일(토) 낮 12시20분 JnJ아트컨벤션 2층 제이드팔리스홀(경기 광명시 비전5로 20-46). 031-653-5300.